

# 종교개혁주일 예배

홍명희 | 교수 · 복민교육원

## 계속되는 창조의 힘으로서의 개혁

16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종교개혁의 결과로 프로테스탄트라 불리우는 '개신교' 또는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종교개혁은 그러나 16세기에만 제한되었던 현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후부터 규모와 형태와 역사적 배경은 달랐을지 몰라도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천지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즉 계속되는 창조(creatio continua) 형태로 이어지게 되면 완전한 창조의 완성까지 이어지게 된다. 죄된 피조세계는 본능적으로 타락과 부패를 지향하는 힘이 있다. 이런 본성에 돌이키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선함을 상기시키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로 인도하려는 노력이 창조 또는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 개혁가로서의 예레미야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의 각성운동을 이끌었는데 예레미야는 여기의 전형적인 한 예이다. 우선 선지자의 삶은 실제의 행동과 말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깊이 박혀있고, 그들의 삶과 실존은 이미 말씀 선포라는 쪽으로만 제한되어버린 자들이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고 고독에 시달렸으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감정과는 반대로 재앙을 선포해야만 하는 고통에 시달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은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온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며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적들과 반대자들의 비난과 비웃음 그리고 이루 어지지 않았던 심판으로 더욱 조소와 비방과 괴로움을 당했다(렘 17:14-18).

"예레미야는 백성의 치유할 수 없는 병 때문에 번민했다. 그는 백성들이 '완고하고

반항적인 마음' (렘 5:23)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야웨의 어떠한 훈계도 다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예언자들의 말은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났다. 즉 백성들은 쿠(3:16), 할례(4:4), 율법(8:8), 제의(7:21-26), 성전(7:4)등 제도에만 의존했다.”<sup>1)</sup>

야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뒤 제사를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에서 멀어진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멸망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백성들은 쉽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기와 부패를 일삼았던 것이다.

### 루터의 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마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 그도 예레미야의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만 하는 고통의 결과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1521년 보름스에서 단지 자신의 양심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것 뿐이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와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용서의 작업을 이용하지 말자고 하였다. 이미 1517년 95개 조항 가운데 78번째 조항은 만일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자 하면 왜 가장 부자인 그가 그의 돈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면죄부에 동의를 한 감독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한 루터는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만큼 입장이 강하게 되어 갔다. 1519년에 그는 공회들 조차 틀릴 수 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521년 보름스 종교재판에서 루터는 황제 앞에서 비록 초라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교회전체가 잘못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지배자였던 황제 칼 5세는 말하기를 ‘기독교 전체에 반하여 단 한명의 수도승 만이 옳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의 대답은 “성경과 분명한 이성적인 증거들이 비록 나를 확신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음을 확신하다. 나는 따라서 내가 한 것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은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가져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sup>2)</sup> 당연히 루터는 두려웠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살아서 보름스를 떠나게 된다. 개혁은 루터처럼 소수의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을 통해서

1. 구약성서의 이해 II , B.W. 앤더슨 / 제석봉 옮김, 성바오로 출판사, 264p.

2. Richard Friedenthal, Luther sein Leben und seine Zeit, Serie Piper, 338p

이루어진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과정을 보면 소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와는 조금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상의 것을 지적하고 미약하지만 작게나마 실천에 옮기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의 범위와 이에 상응하여 관련된 개인의 삶도 삶과 죽음을 걸어야 하는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

### 중단없는 작은 개혁의 힘 - 마음

인도에서 헌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 본 테레사 수녀는 죽었지만 많은 이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뭐 남다른 일을 했을까? 인도에 가보면 길거리 노지에서 죽음을 맞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백 오십만명 이상의 사람을 볼 수 있다. 거리를 지나칠라면 적어도 여러명의 구걸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돋기 시작했고 단지 차이는 문제가 해결되건 말건 계산을 미리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돋기 시작한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예레미야나 루터나 마찬 가지였다. 결과가 어떻게 미리 보이든 말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야 할 것을 말하고 스스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단없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일고 끝까지 해 나갔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우상타파의 종교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루터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종교를 개혁하는 복음의 회복의 사슬의 중간 고리였을 뿐이다. 테레사 수녀도 자신이 손을 댄 빈자들을 돌보는 일이 어느정도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야 죽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제도를 바꾸려는 것 보다, 예수님처럼 마음의 완악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주로 현실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미리 해결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손도 안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아는 일이다. 개신교의 추구하는 신앙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아직도 축복과 성공 중심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시 16:5-11)“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시작의 출발은 마음이다. 절대다수의 어두운 세력은 현실이라는 것과 인간의 한계를 핑계로 대며 계속 부패와 타락으로 지향하여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희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세력들의 훼방을 막고 완전한 새 창조(creatio nova)를 이루어 나가는데 조그만 용기를 내어보자.

### ● 예배 준비

종교개혁을 주제로 하는 예배는 각교회마다 특별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예배는 좀 특별하게 구성을 하려는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설교 구성을 앞에서 언급한 예레미야나 루터의 공통점에 두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짧은 단막극을 통해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 지면에 다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래 예배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예배에 중점을 두었다. 초대교회는 종교개혁정신의 모범이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의 좋은 예배적 유산을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배 전에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여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종교개혁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 (예배 맞이 음악, 고백 1·2, 결단의 기도 등)와의 조화를 위해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그대로 재연하지 않고 순서 여기 저기에 등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와 현대의 만남이 그리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예배가 단순 일면도를 걷는 것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장 완벽한 예배 순서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 예배 순서<sup>3)</sup>

#### ● 예배로 부르심<sup>4)</sup>

전      주 .....	반주자
예배인사 .....	인도자

3. 종교개혁은 사실상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데 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초대교회의 예배 예전 유산을 많이 상실했다. 지금의 간단한 예배 형식은 드와이트 무디의 3차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을 때, 한국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 예배 구성은 지금은 사라진 초대교회의 예배유산을 통해 더욱더 종교개혁 정신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고 했다.

4. 여기에서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였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 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관심을 두시고 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순서가 평소와는 다르지만, 한 순서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예배맞이 음악 연주<sup>5</sup> ..... 맡은이

(가능하다면 혼약종주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도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하면 좋겠다. 이 때 예배자들이 알고 있는 가사가 있는 찬송가 연주는 피하여, 마음을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예배 부름 ..... 시편 66:1-5 ..... 인도자

마음을 드높이!<sup>6</sup>

인도자: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같이: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기를 기원합니다.

다같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힙니다.

인도자: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 경배의 찬송 ..... 57 장 (즐겁게 안식할 날) ..... 다함께

\* 예배의 기원 ..... 사회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때의 그 감격과 결단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운 것은 과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자칫 예전의 주님의 시대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굳어진 종교인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들과 신앙적 교만에 의해 자칫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에서 멀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빛을 높이 들게 하소서.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충실히 하소서. 이 예배의 순간마다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영광송 .....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2회) ..... 다같이

5. 힘차고 화려한 음악을 준비한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회가 준비 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후렴정도의 너무 짙은 길이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어유있는 시작이 좋을 것이다. 예배자들이 알고 있는 가사가 있는 찬송은 피하여, 생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6. 3-4세기 예전으로 성만찬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 ● 말씀과 결단

말 씀	렘 17:5-10	맡은이
아 멘 송 <sup>7</sup>	557장(2회)	다같이
신약의 말씀	요1서 3:18-24	맡은이
아 멘 송	557장 (2회)	다같이
찬 양		성가대
설 교 <sup>8</sup>		설교자
고백 1 <sup>9</sup>		맡은이

(노숙자 : 허름한 차림으로 분장한다)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 직장을 끊었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되기 전에 저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두 인정받으며 사는 성실한 사람이며 교회에서도 충실히 생활했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들이 모여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랑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서로를 위하여, 잘 지내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들은 실패한 자들이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부류의 사람들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저를 참 우울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힘을 갖게 되고, 또 오늘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저 같은 사람도 세상을 어느 정도는 바꾸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하나님은 제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조금씩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구요?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직업이 있다는 것과 가정을 꾸려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에 더 이상 불평하게 되지 않으며,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미약하게나마 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때로는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며, 쓸데 없는 사람들이라고 혀를 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찬성하실 수 없나 봅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서도 노숙자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의 존재가 비록 보잘 것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사람들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멸시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단 한분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하여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평

7.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8. 설교대신으로 다음 고백을 낭독할 수 있다.

9. 여기에 제시된 노숙자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이혼자, 에이즈환자, 실업자등으로 개교회에 맞게 고백을 준비해도 좋겠다.

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도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작은 힘이나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 2 ..... 말은이

(예레미야: 가능하다면 분장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여! 물없이 더러운 이 깊은 우물바닥 진흙 수렁 속에 던져진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우물 벽을 기어 다니는 저 징그러운 벌레들만도 못한 저의 생명도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사회정의와 약자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저들의 완악한 태도뿐입니다.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나 말게 하시지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 하고 원망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밤에는 이 좁은 우물 밖으로 저 멀리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당신의 거룩함과 영원함을 생각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우물바닥 밑에 초라하게 던져져 있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신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뜻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더러운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란 말입니까? 문득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벌레 득실 거리는 더러운 곳에 던져진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방과 모욕 그리고 비참함에 시달리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당신의 뜻을 이곳 진흙탕에 던져 버리고 어둠에 영원히 묻히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목이 곧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스스로 고난과 수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여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을 진흙 속에 던져 버리는 자들 때문에, 또한 그래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죄 없는 양처럼 침묵 속에서 고난을 지고 가십니다. 용서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깊음과 넓음을 몰랐던 이 미련한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들어켜 당신의 양들로 살게 하소서!

### ● 결단의 기도

인도자: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작은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매일 매일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 필요한 용기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인도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들은 불행이나 위험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쳐지고 싶지 않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언젠가는 하나님 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사랑한다면 제 인생에서 떼쳐자는 모

든 것들을 끌어 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나라 도처에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수 많은 부정 부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다함께: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짖주리는 아이들과 난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교단의 이익이나 교권의 입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선교 단체와 선교 단체가 서로 힘을 모으기 보다는 경쟁하기에 더 많은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런 큰 과제 앞에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아버지, 너무 큰 문제들이라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더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일은 끝 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인도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며, 오늘의 삶이 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인도자: 말씀 만이 저희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오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바른 양심과 전체 성경의 맥락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함께: 매일 말씀의 샘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 ● 파송과 축복<sup>10</sup>

소식알림 ..... 집례자

파송과 위탁의 말씀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오실 날을 소망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불의 와의 타협이 유혹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생활이 지배하려 할 때, 성령께서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작은 일을 충실히 힘으로 개혁의 빛을 빛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찬 양 ..... 파송의 노래 ..... 다같이  
축 도 ..... 집례자

10. 성찬 성례전은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마다 빠트릴 수 없는 예전이었다. 여기에서는 생략한다.